현대소설연구(제85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2.03.85.405

폭음하는 신체의 침묵과 해방

-『만세전』 다시 읽기

윤 재 민*

요약

이 글은 이인화가 체현하고 있는 식민지 주체의 신체적 수행성의 한 양상으로서 술 마시는 인간(homo imbibens)의 양태에 주목하여 『만세전』을 다시 읽는 시도이다.

동경 유학생 인화는 자신을 향한 부조리한 조사와 통제를 '견딜만하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정동을 일시적인 소비와 음주를 동반한 향락으로 해소해 왔다. 이러한 그의 행태는 조선인 정체성을 경원시하는 주체의 자기 배려와 관련되는데, 이후 그의 심신은 열등감과 자기 학대에 시달리게 된다. 인화의 조선인 정체성은 귀국 이후 성인 남성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강도를 더해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피동적인 삶 속에서 자유의지를 상실한 폭음하는 신체가 되었다고 자조하게 된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 폭음하는 조선인-신체 인화는 종전과 혁명 이후라는 신시대에 발맞춰 그간의 관성적이면서 수동적인 자기 배려의 삶에서 해방되길 꿈꾼다. 그 첫걸음은 동경에서 정자와 맺은 술집에서의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우정과 호혜적 증여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세계의 변혁을 위해 그간의 침묵을 그치고 무람없이 타인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침묵 또한 깨뜨리고자 하는 당시 청년 염상섭의 해방에 대한 지론이 담겨 있다.

주제어: 『만세전』, 염상섭, 식민지 통치성, 침묵의 순환, 해방, 술 마시는 인간, 자유의지

* 조선대학교 강사

목차

1. 들어가며
2. 식민지 지식인의 침묵과 해방
3. 폭음하는 신체
4. 나가며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염상섭 연구의 중심주제로 그다지 주목된 바는 없지만, 염상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음주(飮酒)는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대상이다. 염상섭이 식민지 시대 문사 중 손꼽히는 자타공인 주당이기 때문이 아니다.[1] 염상섭 소설 세계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 저항과 대안 사상과 관련된 에피소드의 상당 부분이 음주와 관련되는 탓이다. 선술집에서 술김에 외친 "세상에 이럴 데도 잇소"라는 술주정 한마디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여인[2], 음주와 함께 은밀하게 소개되는 『자본론』과 정치경제학[3], 사회주의자와의 연결·접선의 공간으로서 술집[4], 불령인사들의 아지트인 『무화과』의 인사동 주점 '보도나무' 등. 식민지 시대 염상섭 소설을 읽다 보면 그가 이 시기 대안 사상과 반항적 청년을 하나로 묶는 공통적인 아비투스로서 음주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 양주동은 염상섭을 "내주객, 유영, 이백 내지 헨리 오세, 드레이크 등과 並駕齊驅하는 鯨飮黨員으로 자처"하며 청년 시절을 탕진한 대표적인 문사 중 하나로 회고한다. 양주동, 「文·酒의 벗들: 白酒會」, 『梁柱東全集 4: 文酒半生記/人生雜記』, 동국대학교출판부, 1975, 72면.

2) 염상섭, 「檢査局待合室」, 『廉想涉全集 9: 前期短篇』, 민음사, 1987, 223~224면 참조.

3) "'무슨 책이기에 이러케 팔목을 빼놋는지 좀 봐야'하고 풀어본다." 박사의 경제원론이 나왔다. 가죽등에 금글자를 박은 커단 책이다. 그 다음 본지에서는 L씨의 번역인 자본론의 락질된 제일권이 나왔다." 염상섭, 『廉想涉全集 5: 白鳩』, 민음사, 1987, 178면.

4)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염상섭, 『『廉想涉全集 2: 사랑과 죄』, 민음사, 1987, 191~212면 참조.

이를 논할 때 『삼대』를 빼놓을 순 없을 터이다. 주점은 가문연대기를 표방하는 이 소설에서 조씨가문의 저택보다 훨씬 비중 있는 주요 무대이다. 조씨가문의 삼대째인 덕기는 음주를 빙자하며 사회주의·아나키즘을 도모하는 동시대 다양한 계급의 청년 주체들과 교류한다. "동경에서 보는 찻집 모양"을 지향하는 그럴듯한 외관에 "흙바닥 위에 톱밥을 깔고 아무도 없는 게딱지 만 한"[5] 초라한 술집 '바커스' 혹은 카페·오뎅야(おでん屋)·킷사텐(喫茶店) 등지는 세대, 계급, 국적, 사상이 상이한 이들이 조우하여 곁고 트는 세속적(worldly) 용광로이다. 반항적 청년들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는다. "이태 동안이나 미국에 다녀온 사람, 그리고 도도한 웅변으로 설교하는 깨끗한 신사"[6]이자 "죽으면 목사보다도 천당에 먼저 갈 사람이라고 지목받는"[7] 인품의 소유자로 알려진 상훈에게 음주는 평판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면모와도 관련된다.

이렇듯 『삼대』가 상연하는 음주, 정확히는 알코올을 곁들인 식민지 조선인 사회의 아비투스와 관습은 양가적이다. 그것은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평판이나 계급, 상황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인물들의 '진면모'를 가시화하는 극적 장치이다. 사회주의자 병화의 음주는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만나기 위한 은밀한 사회적 실천과 관계된다. 동시에 정치적인 구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덕기와의 사적인 관계를 가시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병화는 단순히 사회주의적 이념의 화신이 아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적관계 안에서 자신의 신념과 사적인 우정이 뒤섞인 회한을 술의 힘으로 털어놓는, 복잡한 사연을 간직한 세속적 신체이다. 덕기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기꺼이 술값을 지불하면서 병화와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동정자적 입장을 드러낸다. 상훈을 비롯한 기성세대 기독교 지식인들의 음주행위

5) 염상섭, 정호웅 편, 『삼대』, 문학과지성사, 2008, 13면.
6) 위의 책, 90면.
7) 위의 책, 96면.

는 그들의 위선적인 성격과 삶의 태도를 가장 비천한 형태로 가시화한다.

이는 알코올이 신체에 가하는 향정신성 작용(mind-altering effects)의 문학적 전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알코올은 일반적인 소화(digest)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혈액순환 과정에 곧장 개입하여 인간의 인지능력과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8]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마취성 약물로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화학물이기도 하다. 고통을 줄이고 감염을 막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적 용도부터 일상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동서고금의 촉매제이다.[9]

올코올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화학적 효과는 시대를 초월한 문학의 제재로서 기능했다. 술의 힘을 빌려 풍류를 노래하는 이백(李伯), 19세기 파리 룸펜 생활자의 우울(melancholy)을 폭음 속에서 노래하는 보들레르의 시 등, 그 예는 무궁무진하다. 음주를 통해 자신의 진면모를 드러내는 염상섭 소설 특유의 장치는 그 숱한 사례 중 하나이다. 그중에서 염상섭은 특히 알코올이 동반하는 일시적인 자기 해방의 자아효능감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나는 중독성 물질과 마취제, 특히 술로 인해 형성되는 의식상태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인류를 압도하는 술의 지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 본성의 신비적 기능을 자극하는 술의 힘 때문에 생겨난다. 그 신비적 기능이란 술에서 깨어나고 나면 다가오는 냉혹한 사실들과 인정 없는 비판에 의해 여지없이 현실에서 으깨어지는 것이지만 말이다. **금주 상태에서는 사람이 위축되고 분별력이 있으며 '아니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위풍당당해지고 연합하고 '예'라고 말한다. 사실**

8) Ronald L. Akens, *Drugs, Alcohol and Society: Social Structure, Progress and Policy*, Belmont: Wordsworth, Inc., 1992, p.188 참조.

9) 페트릭 E. 맥거번, 김형근 역, 『술의 세계사: 알코올은 어떻게 인류 문명을 발효시켰나』, 글항아리, 2016, 15-16면 참조.

> **술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 기능(Yes function)에 대단히 자극적인 것이다. 술은 그 탐닉자들을 사물의 차가운 외면으로부터 찬란한 중심으로까지 이끌어간다. 술은 한순간 그를 진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이 술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심술궂기 때문이 아니다. 술은 가난한 자와 문맹자에게 교향악단과 문학을 대신하여 서 있다. 즉 전체적으로 주독(酒毒)이 빨리 진행되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섬광과 바람 같은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판명된다는 것은 삶의 보다 깊은 신비이고 비극의 일부분이다.[10]

알코올의 향정신적-화학적 마취 효과는 인류에게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의 향정신 화학작용의 차원에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아니오'에서 '예'로의, 심신(心身)의 전환을 표상하는 취중 상태는 그 자체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행위이다. 긍정 기능에 취한 음주 상태의 심신과 '정상적인' 사회규범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음주는 여타의 사회적 행위처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 즉 허용과 규제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11]

이는 염상섭 소설 세계의 주요 장치로서 음주가 갖는 의미를 보다 깊이 탐구할 단초이다. 비단 『삼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염상섭 소설 세계의 주당들은 각자가 놓인 사적 위치에서의 정동을 알코올을 곁들여 표출한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전후(前後)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식민지 지식인들을 그리는 염상섭 초창기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화자 X와 그의 친우들은 총독부에 의한 통제가 일상이 된 조선 사회에서 술에 찌들어 살아간다.[12] 모종의 사건으로 지난 봄 일제에

10) 윌리엄 제임스,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한길사, 2003, 269-479면. 강조는 인용자.

11) Mark Jayne, Gill Valentin & Sarah L. Holloway, *Alcohol, Drinking, Drunkenness: (Dis)Ordinarly Space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11, p.109 참조.

12) "그러게 말이야…… 군은 아무것에도 붙을 수 없었다. 아무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알코

의해 수감되어 풀려난 X의 손 윗세대 김창억은 삶의 의미를 잃고 폭음을 일삼는 폐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각자가 놓여 있는 상황과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술로 소일하는 식민지 조선인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X와 김창억은 상통한다. 자신이 처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나 실천 없이 알코올로 소일하며 점차 무너져가는 유약한 심신인 것이다. 이들의 면모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선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인 세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지평이 대동소이한 현실을 암시한다.

이는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비롯한, 염상섭 초창기 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해석에 상응한다.[13] 『표본실의 청개구리』 의의에 대한 일련의 통념은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염상섭 나름의 성찰과 대응으로서 그의 두 번째 소설 『만세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14] 이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논의의 관점은 사뭇 다르다. 기존 『만세전』 관련 선행연구들은 당대의 식민지 지식인 염상섭이 체현한 정신적 차원의 교양 혹은 이

올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비통하고 비참은 하나 그중에서 위안은 얻기에 먹는 게 아닌가. 그러나 결코 행복은 아니다. 그는 고사하고 알코올의 힘을 빌지 않아도 알코올 이상의 효과가…… 다만 위안뿐 아니라 행복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 하면 군은 무엇을 취할 터이냐는 말이야, 하하하……"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김경수 편, 『두 파산』, 문학과지성사, 2006, 21-22면.

13) 이와 관련된 주요 논평으로는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4-27면; 이보영, 『난세의 문학: 염상섭론』, 예림기획, 2001, 28-32면; 황종연, 「과학과 반항- 염상섭의 『사랑과 죄』 다시 읽기」, 『사이』 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89면; 이종호, 『염상섭 문학의 대안 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37-238면; 이철호, 「해부와 허언- 염상섭 소설과 근대 생명정치의 한 기원」, 『상허학보』 56, 상허학회, 2019, 189-190면 등 참조.

14) "『만세전』은 염상섭 소설의 특징을 밝힘에 주춧돌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는 김윤식(위의 책, 189면)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그 외 이와 관련된 주요 논평과 선행연구로는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삼신문화사, 1999, 4-5면;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후기 단편소설」, 문학과사상 연구회, 위의 책, 163면; 이혜령, 「正史와 情史 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학사연구』 4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230-275면; 김명인, 「한국 근대소설과 식민지 근대성: 시론적 연구- 염상섭의 『만세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371-402면 등 참조.

념의 대안적 의의에 주로 주목해왔다.[15] 이 글은 이인화가 체현하고 있는 식민지 주체의 신체적 수행성의 한 양상으로서 술 마시는 인간(homo imbibens)의 양태에 주목하여 『만세전』을 다시 읽는 시도이다. 단순히 재미있고 참신한 해석을 위해서가 아니다. 음주와 관련된 인화의 분열적이고 뒤틀린 신체적 수행성이 식민지 시기 염상섭이 천착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궁극적인 해방이라는 중차대한 화두와 관련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식민지 지식인의 침묵과 해방

『만세전』은 인화에게 동경에서 백 원을 동봉한 서울발(發) 전보가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편지의 내용에 인화는 '대면이나 시킬 작정으로 이 야단인가'라며 강한 반감을 표한다. 동경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지내던 인화에게 서울의 본처는 현재의 일상을 훼방 놓는 성가시고 불편한 존재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화는 집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아무리 조선의 집안과 자신의 관계를 숨기고 세련된 동경 생활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한다 하더라도 인화의 진정한 토대와 근본은 가족이 있는 조선이다. 따라서 그는 영원히 동경에 머무를 수 없다. 언젠가 조선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이다. 무엇보다 서울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경제활동의 의무에서 벗어난 생활을 누리고 있는 탓이다. 인화 또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모르지 않는 듯하다.

15) 초기 염상섭 소설과 평론의 정신적 맥락으로서 교양과 이념에 주목하는 논의로는 허병식, 『교양의 시대: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형성』, 역락, 2015, 95-101면; 장두영,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개성'과 '생활'의 의미-아리시마 타케오의 『아낌없이 사랑은 빼앗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4,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351-374면 등 참조.

그는 집안에 의지한 유학 생활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길 원하는 눈치이다. 이미 조선에 있는 가족의 지원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관성적인 유학 생활에 젖어있는 탓일 터이다. 귀국하라는 종용에 짜증을 내다가도 서울에서 보내온 학비와 생활비에 "병인은 죽었든 살았든, 하여간, 돈 백원은 반갑지 않은 게 아니었다"[16]라며 반색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돈 앞에서 마을을 푼 인화는 '하숙집 여편네'와 위독한 아내를 소재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이후에, 서울에서 송금한 "10원짜리 지폐 열 장을 양복 주머니에 든든히 집어넣고"[17] 기분 좋게 학교로 가 주임교수 H를 찾아가 자신이 처한 사정을 설명한다.

> 교수실에는 마침 H주임교수가, 서류 가방을 만작거리면서 나오려고, 머뭇거리며 있었다. **나는 H교수가 모자까지 쓰고 나오기를 기다려서, 좁은 마루 한구석으로 청하여가지고 나직나직하게, 내의(來意)를 말하였다.** "……"[18]

귀국을 종용하는 전보 앞에서 내비쳤던, 파렴치하기까지 한 노골적인 짜증과 양복주머니에 두둑한 돈을 뒷배로 하는 듯한 거침없는 말본새는 H교수 앞에서 온데간데없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학생이자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차린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스승 앞에서 흐트러진 평소 모습을 숨기고 외관을 단정히 하는 건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H교수를 대하는 인화의 태도에는 어딘가 꺼림직한 구석이 있다. 자신의 말에 가볍게 반응할 뿐인 H교수의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과잉 해석하고 자책한다. 게다가 제때 연종시험을 치지 못하는 사정 또한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필요 이상으로

16) 염상섭, 「만세전」, 김경수 편, 『두 파산』, 문학과지성사, 2005, 9면.
17) 위의 책, 10면.
18) 위의 책, 10-11면. 강조는 인용자.

눈치를 보는 바보 같은 행동을 일삼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 의외에 얼른 승낙을 하여주기 때문에, 나는 할인권까지 얻어가지고 나오기는 나왔으나 시험 치르기가 귀찮아서 하는 공연한 구실이라고, 오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자곡지심이 처음부터 앞을 서서, 좀 쭈뼛쭈뼛한 것이 암만해도 불유쾌했다. 종점으로 나와서 K정으로 향하는 전차에 올라 앉아서도, 아까 H선생더러, 얼김에 한다는 소리가,
>
> '어머님 병환이……'라고 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혼자 더욱이 찌뿌드드한 생각을 이기지 못했다.
>
> '왜 하필 왈, 어머님의 병환이라 했누? 내 계집이, 죽게 되어서 가겠다면, 어디가 어때서, 어머니를 팔았더람?'
>
> 이같이 뇌고 뇌었으나 소용은 없었다.[19]

인화는 자신의 사적인 사항을 털어놓는 것에 모종의 강박적 두려움을 느낀다. 거리낌 없이 내보여지던 인화의 내면이 갑자기 말줄임표(인용 18)로 표기되는 건 이를 염두에 둔 장치인 듯하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화가 H교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독자들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인화가 필요 이상으로 말조심을 하고 있다는 암시와 함께, 인화가 독자들에게 침묵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인화의 침묵은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는 H교수와 헤어지고 번화가로 나오자마자 두둑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되찾는다. 쓰카타니야에서 양장과 여행용품을 구입하고, 여유롭게 들린 이발소에서 이발사를 향해 "그럼 면도나 할까!"[20]라고 외치는 인화의 모습은 직전까지 '말줄임표'로 대화하던 사람이 맞나 싶다. M헌 문전에 있는 단골 술집 여종업원 정자가 따라주는 위스키를 마시며 위독한 아내를

19) 위의 책, 11면.
20) 위의 책, 12면.

소재로 농담과 주정을 핑계로 자신의 경박하고 한심한 면모를 숨기지 않고 신나게 회포를 풀기까지 한다.[21] 그리고 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밤기차로 조선을 향한 마지 못한 여정을 시작한다.

1) 침묵

일본인 상급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다가도 소비와 유흥 같은 사적 쾌락을 거침없이 탐닉하는 인화의 이중적인 행태는 흥미롭다. 이러한 인화의 면모를 이해하기 위해 1910년대에 식민권력이 내세웠고 대중이 추종했던 새로운 인물형, 신사(紳士)의 형상을 참고해볼 수 있을 듯하다. 권보드래에 따르면, 신사는 자기 계발을 통한 사적 개인의 면모를 고양하는, 식민지 시대 '이상적인' 근대적 남성 주체이다.[22] 그들은 개화기 남성 지식인을 대표하던 (조선인)영웅과 지사 대신 식민지 체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만세 전'의 조선에 출현한 '작은 주체'의 군상 중 하나였다.

---

21) "그러나 문제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닌 그 어름에다가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다. 죽거나 살거나 눈 하나 깜짝거리지도 않으면서 하는 공부를 내던지고 보러 간다는 것이 위선이다. 더구나 여기 술 먹으러 오는 것을 무슨 큰 죄나 짓는 것 같이, 망설이는 것부터 큰 모순이다. 목숨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과, 내가 술 먹는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그 사이에 아무 연락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내 처'가 죽어가는데 술을 먹다니? 하는 소위 양심이 머리를 들지만, 그것이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 관념이란 악마가 목을 매서 끄는 것이다. 사람은 그릇된 관념의 노예다. 그릇된 도덕적 관념에서 해방되는 것기에서 참된 생명을 찾는 것이다. 사랑치 않으면 눈도 떠보지 않을 것이요, 사랑하고 싶으면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란다!" 앞의 책, 22면.

22)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170면. 신사는 근대적 남성 주체의 특정한 형상을 지칭하는 신어(新語)로서, 매우 넓은 용례로 통용됐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용례는 근대적 남성 상인계급 부르주아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만세전』에서의 신사용례 또한 이를 따르고 있다. 신사에 대한 권보드래의 비판은 제국 일본의 피통치 신민으로서 근대적 남성주체 부르주아지의 이상이 주어질 수 없는 가운데, 그 이미지가 식민통치 담론으로 재생산되는 맥락을 염두에 둔 진단이라 판단된다.

> 식민권력은 개인의 삶을 안돈(安頓)케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 시대 내내 위협받았고 1900년대에도 위태롭게 들썩였던 작은 주체로서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애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1900년대에 혹시 피로하진 않았는가? 공연한 허위의식이나 의무감에 번거롭지 않았던가? 1910년대식 작은 주체의 삶에서는 대신 안전과 편익과 쾌락이 중요해졌다. 치안의 향상과 도로망의 확충과 관광자원의 확보가 보장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식민지인으로서의 제약과 수동성도 상쇄될 수 있을지 몰랐다. 『매일신보』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면서 다종다양한 '취미'와 '쾌락'을 추천했다. "우리는 쾌락 없이는 살 수 없소!" 성실히 노동하여 사사화(私事化)되고 가정화된 개인의 영역을 공고히 한 후, 여가에는 건전한 쾌락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공익심·자선심을 견지함으로써 성공적인 타협을 이루는 것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모범적 처세술의 요약본이었다.[23]

정리하자면 신사란, 식민지 통치성과 헤게모니에 예속된 채, 자기 보전의 처세로서 침묵을 체화한 남성 주체이다.[24]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란, 피식민 주체에게 강요되는 권력과 헤게모니가 재생산-순환되기 위해 개발자들에게 요구하는 수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침묵의 수행성은 제국-식민지 관계의 권력과 지식의 재배치 과정이 피식민 주체에게 가하는 억압과 압력의 통치성과 관련된다. 구파(P. Gupal)는 제국주의 헤게모니와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 침묵의 순환(cycles of silence)을 주장한 바 있다.[25]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담론적 주류화는 필연적으로 피식민 주체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23) 위의 책, 170-171면.

24) 무단통치에 순응하는 1910년대 조선인 주체를 침묵이라는 메타포로 일별하는 관점은 위의 책, 157-189면 참조.

25) Priyamvada Gopal, *Insurgent Empire: Anticolonial Resistance and British Dissent*, London: Verso, 2019, pp.10-11 참조.

해방과 자유를 위한 실천의 역사를 소거하는 기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침묵의 순환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통치자의 정치적 요구와 실천을 비가시화하는 미시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무단통치 시기 신사의 미덕으로 강권 됐던, 근대도시의 안온함 속에서 작은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사적 취미와 쾌락을 통한 일탈의 장치들은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3월 1일 전후에 조선인들이 외친 '만세'와 '독립'에 대한 반(反)-선언을 추동하는, 침묵의 순환 기제를 위해 배치된 물질문화이다.

H교수 앞에서 침묵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다가 동경의 화려한 번화가에서 소비로 침묵에서 '해방'되는 인화의 면모는 침묵의 순환에 예속된 존재의 한 전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화의 침묵이, H교수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는 데서 암시되듯, 전(前)의식적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관부연락선 안에서의 욕탕 에피소드는 인화가 체화한 '침묵'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가시화한다. 하관(下關)에 도착하자마자 느닷없이 순사에게 고초를 당한 인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욕탕으로 뛰어들고 뒤따라 들어온 삼사 인의 일본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다. 가벼운 호구조사에서부터 시작된 대화는 그들 각자가 조선에 가는 목적에 대한, 농담을 섞은 환담으로 이어진다.

> "암, 알구말구요. 그 양반은 나를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 참 나요? 그럭저럭 오륙 년이나 '요보' 틈에서 지냈습니다."
>
> "에구, 그럼 한밑천 잡으셨겠쇠다그려."
>
>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
>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밑천 잡기는……"
>
>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
> "요보 말씀이에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마는, 촌에 들어가면 대만(臺灣)의 생번(生蕃)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인제 가서 보슈…… 하

하하.”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욕탕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는 모두 킥킥 웃었다. 나는 가만히 앉았다가, 무심코 입술을 악물고 쳐다보았으나 더운 김에 가려서, 궐자들에게는 자세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26]

인화는 일본인들의 모멸적인 농담에 인화는 본능적으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른 후에 의식으로 침묵한다.[27] 그간 직접적인 감시와 차별을 일시적인 불편함 정도로 치부하던 인화가 이렇듯 하찮은 농담에 무심코 반응하는 것만큼 식민지 주체로서 그의 정체성이나 위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건 없다. 농담이란, 청자의 전(前)의식적 반응으로 화자의 의도의 전달 여부가 결정되는 의사소통 형식이다. 농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상징계적 언어체계-형식의 연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발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공통적인 상징질서에 연루시키는 작업이 어긋날 시에 농담은 실패한다.[28] 상징체계를 공유하는 대화자 간의 전의식적 반응으로 성패가 결정되는 농담 형식적 특성은 주체가 자기 지속과 안위를 위해 내세우는 사회적 퍼스널리티로 환원되지 않는, 자아와 정체성의 진정한 토대를 마주하는 우발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29]

조선인을 대만의 생번에 비유하는 농담에 대한 즉각적인 인화의 불쾌감은 대화의 맥락과 의미를 그가 즉각적으로 인지한 결과 나타난 정동이

26) 염상섭, 앞의 책, 48면.

27) 인화의 침묵은 농담에 대한 반응과 달리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것은 독약이 고구(苦口)나 이어병(利於病)이라는 격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들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는 의도로 합리화되는 데서 알 수 있다. 위의 책, 49면.

28) 윤재민, 「전후 유머 · 명랑소설의 흥망성쇠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사사키 쿠니-조영수-조흔파’로 이어지는 계보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258-259면 참조.

29) 위의 책, 281-282면 참조.

다. 농담의 소재인 '대만의 생번'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대만섬의 선주민이자 소수민족인 오스트로네시아어계 대만 원주민에 대한 멸칭이다. 그것은 17세기 대만섬으로 이주한 민남·객가계 한족 이주민들이 중화적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선주민을 지칭하는 단어 번(番)에서 유래한다. 대만의 한족 사회는 자신들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한인들과 빈번히 교류하거나 동화된 원주민 집단을 숙번(熟番), 한족 사회와 유리된 야만적인 원주민 집단을 생번이라 지칭했다.[30] 1895년 청나라로부터 대만을 할양받은 일본제국은 자신들에게도 익숙한 중화적 관념을 바탕으로 대만 사회의 구성을 지나인과 생번으로 구획하는 통치체계와 담론으로, 대만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내지의 생번 담론'을 재생산해나갔다.[31] 그것은 제국 헤게모니-담론의 일환으로서 근대적 문명국 일본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초창기 주요한 대중 담론으로서 일본 사회에 다양한 형식으로 유통·재생산됐다.[32]

인화의 동요는 그가 내지 중심의 세계관에서 생번이라는 단어에 공통감각을 정확하게 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33] 여기에는 이 대목에 관한

30) 溫振華·載寶村, 『漢人社會的形成』, 臺北: 玉山社, 2019, pp.85-93 참조.

31) 마쓰다 쿄코에 따르면, 이러한 통치체제는 한족 거주지 바깥 번계(番界) 구역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대만 원주민)들을 영토와 신민으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구성된 중화적 문명/야만담론의 산물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청제국은 서구열강의 대만간섭에 맞서는 가운데 번계를 폐지하여 대만섬과 원주민 전체를 통치구역으로 뒤늦게 선포하였다. 그러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된 이후에도 대만 원주민에 대한 중화주의적 차별의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내지 법률의 기준에서 대만의 원주민을 규정 밖의 화외지민(化外之民), 즉 근대적 인권·인격 바깥의 야만적 비인간으로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松田京子, 周俊守譯, 『帝國的思考: 日本帝國對臺灣原住民知識支配』, 新北市: 律城出版, 2019, pp.145-146 참조.

32) 제국주의 초창기 근대 일본의 문명 담론의 일환으로서 대만 원주민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Ibid., pp.205-283; 許俊雅, 『日治時期原住民: 相關文獻飜譯選集』, 臺北: 秀威資訊技股份有限公司, 2018을 참조.

33) 이는 내지의 생번 담론에 대한 당시 염상섭의 문제의식이 담긴 장면이라 생각된다. 메이지 초창기부터 1910년대 까지 '내지의 생번 담론'은 일본 주요 도시의 주요 신문·잡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사카 지역의 대표신문인 『오사카 아사히신붕(大阪朝日新聞)』은 그 주요 생산처 중 하나였다. Ibid., pp.59-98 참조. 염상섭은 오사카에 머물고 활동했을 당시 『대판조일

통상적인 해석이 주장하듯, 일본에 의해 천대받는 피지배 민족으로서 조선인과 대만 원주민 사이의 동병상련의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터이다.[34] 그러나 이 순간 인화의 정동을 단순히 식민권력에 대한 피압박 민족들 간의 연대의 감정으로 완전히 환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통제를 '참을 만한 것'이라 합리화하며 지내다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야만인에 비유하는 일본인들의 차별적인 발언에 전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소외감과 열패감에 시달리면서 끝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을 대만의 생번과 비교하는 일본인들의 농담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상황은 인화의 침묵이 단순히 일본의 통제에 대한 의식적인 정치적인 반발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님을 시사한다. 그것은 근대 일본제국의 상징체계 전반으로 훈육된 주체가 체화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성과 관련된다. 또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인화의 자아가 분열되고 왜곡된 토대 위에 불안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2) "경우(境遇)의 폐하(陛下)에 기척하였습니다"

집안의 도움으로 유학 생활을 영위하는 주제에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한편 권위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남자. 식민권력의 일상적인 감시와 조사를 참을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

신문』의 위상과 이를 애독했음을 간접적으로 회고한 바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은 3·1운동 당시 일본 오사카에서 재판받을 때의 일이다. 판사가 족적을 묻는데,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평민이라거나 거족 쯤으로 대답하여서 좋았을지 모르는데, 언하에 서슴지 않고 "상인(常人)이요"라고 대답하여두었던 것이다. 그후 얼마 만에 석방이 되어 나와서, 친구가 모아두었다가 보여주는 『대판조일신문』(그때는 '대판'자가 붙어 있었다)을 보니깐, 목침덩이 같은 활자로 내 이름을 붙인 제목 옆에 "나는 상인이요"라고 서브 타이틀을 커닿게 붙여놓은 것을 보고, 혼자 미소고도하고 통쾌한 생각도 들었었다." 「나의 초기 작품시대」,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 Ⅲ: 1946-1962』, 소명출판, 2014, 427-428면.

34) 이보영, 앞의 책, 130면 참조.

기가 속한 차별적 농담 한마디에 몸으로 먼저 반응하며 분노하면서도 끝내 침묵하는 지식인 주체. 염상섭이 그리는 인화의 면모는 가장으로서나 지식인으로서나 이상적인 인격과는 거리가 멀다. 자기 안위에 민감한 채 상황에 걸맞게 자신의 면모를 순간적으로 일신하고 통제하는, 침묵하는 기회주의자에 가깝다.

안타까운 건 자기 안위를 위해 침묵을 택하는 처세가 그에게 행복이나 내적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인화는 침묵으로 얻은 소소한 심신의 안위의 대가로 내적 분열과 열패감에 시달리는, 뒤틀리고 분열된 심신으로 점차 전락한다.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인화라는 일인칭 화자를 내세워 식민권력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조선인 지식인의 뒤틀린 내면을 신랄하게 폭로한다. 그것은 염상섭 스스로가 체화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당대에 대한 침묵의 대가로서 떠안아야 했던 근대 지식인으로서 자기분열에 대한 절감 이후의 반성과 성찰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외에 또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가장 학대하는 자도 자기 이외에 또다시 없는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용(愚庸)의 도(徒)일수록, 자기 학대와 정화한 정신적 자애를 혼동합니다. 그 실례를, 그 제2자를, 제군은 이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안전(眼前)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자기를 조롱하고 구치하고 학대하는 폭군과, 또 이것을 받는 노예와의 이중생활의 수행자올시다. 그뿐만 아니외다. 자기분열, 의식분열 뿐만 아니외다. **자기분열을 방어하고 자기 내홍을 해결하기 전에 나는 전아(全我)를 들어서 경우(境遇)의 폐하(陛下)에 기척하였습니다. 하므로 나에게 대한 '경우'는 절대권위였습니다.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에 대하여,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포기하였습니다. 위에 제2자의 의지의 활동을 간당하였다는 것이, 곧이 '경우'의 위력을 의미함이외다.** 하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의 윌[will]'을 몰각하고 제2자의 '윌'을

예상하는 생활과, 자기분열에 의한 이중생활은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생활이요, 따라서 자기학대의 생활이라 하겠습니다.[35)]

염상섭은, 3·1운동 다음 해에 쓰여진 자기성찰 격의 논설에서, 진정한 자기 해방을 위해 자기 학대의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여기서의 자기 학대란 자기 자신의 의지(will)가 타인(제2자)의 그것에 종속되면서 나타난다. 자기분열과 학대의 악무한은 개인이 일상과 생활에서 마주하는 경우(境遇)에 종속되면서 고착된다. 여기서의 경우란, 개인을 규정하는 시공간에서의 각종 다양한 압력을 지칭하는 듯하다. 이를 불가항력이라 합리화하며 '절대권위'로 상정하는 생활 속 개인은 끝내 꺼지지 않는 자기 의지와 선택의 괴리 사이에서 내적 분열과 자기 학대로 치닫는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아를 완전히 소거하거나 분열의 원인인 타인의 의지에 따른 생활과 경우에의 종속을 끝내야 한다. 염상섭은 자기애와 개인의 편에 서서 '경우'에 도전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기 해방을 위한 생활 개조를 당위적으로 피력한다.[36)] '경우'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하면서 외부세계와 자아의 타협을 자기분열과 학대의 차원으로 진단하는 염상섭의 관점은 일견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현실세계의 모든 개인에게 온전한 자아 의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자아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상황과 타협해가면서 고유의 생활과 내면을 형성하는 사회화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염상섭에게 자신의 사회적 퍼스널리티와

35) 염상섭, 「자기 학대에서 자기 해방에-생활의 성찰」,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 Ⅰ』, 소명출판, 2013, 77-78면. [], 강조 모두 인용자.

36) "하므로 만일 전(全) 부정하에서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소명시키지 않을 지경이면, 무엇보다도 급한 나의 당면 노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와 '경우'에게 대한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해방의 출발점이요, 생활 개조의 제1 조건이며, 또 그 과정이외다." 앞의 책, 79면.

자신이 믿는 진정한 내적 자아의 간극이 실로 중차대한 문제였던 듯하다. 타자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 '경우'에 침잠하여 발생하는 분열과 자기 학대에 시달림을 고백하는 청년 염상섭의 면모는 1910년대 말 조선인 지식인 인화의 멘탈리티와 상황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당시의 염상섭과 마찬가지로, 동경 유학생으로서 인화는 자기분열과 내적 학대에 시달린다. 세련된 동경 신사의 아비투스에서 비롯됐을 소비의 향락은 이를 달랠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H교수나 욕탕의 일본인들과의 만남 같은 우발적인 경우에 불쑥 엄습하는 내적 열패감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염상섭이 「자기 학대에서 자기 해방에」에서 피력한 "경우'에 대한 도전'으로 손에 넣을 자기 해방은 인화의 당면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 염상섭에게 있어 해방이란, 세계와 인류 개조의 당위[37]이자 세계와 인류가 당면한 모든 불평등과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본능이자 권리를 추구하는 실천의 궁극적인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적인 목적을 표상했다. "내적 해방과 외적 해방, 영의 해방과 육의 해방, 정치 생활의 해방과 경제생활의 해방, 이 양자 이외에는 오인(吾人)의 노력의 대상이 없다. 해방의 욕구는 인류의 본능이요, 권리요, 또한 공통한 노력이다."[38]

물론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경우'의 절대 권위 앞에서 침묵하는 관성에 적응한 식민지 지식인 인화에게 해방의 실천은 난망하다. 인화는, 현재의 고통을 끝낼 해방의 실천을 외면하면서, 귀국길 내내 침묵으로 뒤틀리고 지친 심신을 마취성 향정신성 화학물질에 의지하며

37) "세계 개조, 사회 개조…… 진실로 인류를 위하여 경하할 만한 천래의 복음이다. 그러나 '해방'을 전제로 하지 안흔 개조, '해방'을 의미치 않는 개조, 부분적·비세계적 개조는 쓸데없다. (중략) '해방'의 갈구가 개조의 유일한 동기요, '해방'의 획득이 그 결과가 아닐 지경이면, 개조는 도리어 우리 민족을 도탄에 인도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 해방」, 위의 책, 73면.

38) 위의 책, 74면.

달랜다.

3. 폭음하는 신체

1)『만세전』서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인화의 귀국 여정은 감시와 음주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인화에게 있어서 침묵이 불가피한 보신 행위라면 음주는 이에 따르는 여독의 중화제다.

인화는 여행 내내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지내면서 시시때때로 마셔댄다. 경도(京都)행 밤기차에서 인화는 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도시락과 함께 정자가 싸준 위스키를 마시며 고베 역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하관으로 향한다. 이때는 인화가 이전의 세련된 동경 신사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상실하는 과정과 겹친다. 부당한 불심검문에 시달리고 일본인들의 가벼운 대화에 차마 낄 수 없이 소외되는 침묵하는 조선인에 불과하다. 인화는 관부연락선 안에서 더럽고 무질서한 삼등칸의 '하층사회의 아귀당'과 '하층 관리 부스러기'라 부르며 경멸해 마지않는 군상과 뒤섞인 채 며칠을 불쾌한 기분으로 생활하다 마침내 부산에 도착한다. 시내로 나선 인화는 "김치가 먹고 싶고 숟가락질이 해보고 싶"[39]다는 대목에서 암시되듯, 그간 경원시하던 조선인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미 화풍(和風)으로 일신한 부산에서 그는 조선 음식점을 찾지 못한다. 전등과 전차가 설치된 근대화의 세례, 다다미가 깔린 위생적인 이층집의 풍경에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던 인화는 결국 우연히 발견한 일본 국숫집으로 향한다.

39) 염상섭,「만세전」, 앞의 책, 76면.

여기서 인화는 하관과 관부연락선에서 며칠에 걸쳐 감내하던, 침묵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산의 풍경에 대한 회한을 동반한 여독을 폭음으로 씻어내기 시작한다. 그는 세 명의 여급을 옆에 끼고 걸신들린 사람처럼 거침없이 폭배한다. 하관과 관부연락선에서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며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태도는 온데간데없다. 정자와 P자 앞에서의 거침없고 오만한 말본새도 돌아온다. 마치 일본인 순사에게 당한 고초를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무례하고 난감한 질문을 거침없이 해대며 그녀들을 말로 희롱하기까지 한다.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인화의 심기를 건드릴 인종적인 편견이 담긴 말대꾸를 내뱉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화의 반응은 욕탕에서와 딴판이다.

> "글쎄요, 조선 사람은 난 싫어요. 돈 아니라 금을 주어도 싫어요."
>
> 계집애는 정색으로 대답을 했다. 조선이라는 두 글자는 자기의 운명에 검은 그림자를 던져준 무슨 주문이나 듣는 것같이 이에서 신물이 나는 모양이다. 이때에 나는 동경의 정자를 생각하면서,
>
> "그럼 나도 빠질 차례로군?"
>
> 하며 웃었다.
>
> 계집도 웃으며 잠자코 내 얼굴을 익숙히 쳐다보았다. 입아귀가 처진 밉살맞은 계집이 술병을 들고 올라왔다. 나는 먹고도 싶지 않은 술잔을 받으면서,
>
> "이거 보게. 이 미인을 데려갈까 하고 잔뜩 장을 내고 연해 비위를 맞춰드렸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조선 사람은 싫다는 데야 눈물이 쨀끔하는 수밖에, 하하하. 너는 그렇지 않겠지?"
>
> 이 계집애는 나의 한 말을 이상스럽게 지레짐작을 하고 딴청을 한다.
>
> "넌 의외에 값이 싼 모양이로구나!"[40]

40) 위의 책, 87-88면.

국숫집 종업원들 또한 인화가 학교, 욕탕 무엇보다 파출소에서 만났던 것과 같은 일본인이다. 그러나 이들 앞에서, 정자와 P자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침묵'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인화는 너무나 잘 알고 행동하는 듯하다.

인화가 침묵을 내려놓고 국숫집에서 지친 심신을 풀어헤치는 건 그가 근대 도시에서 음주가 가능한 식당 특유의 제3장소(The Third Place)적 기능을 숙지하고 이용하는 근대 주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장소란 레이 올든버그의 개념이다. 그것은 근대인의 양육과 사적 생활의 배타적 공간인 가정(제1장소) 그리고 물질적인 삶과 존엄을 유지하여 개인을 사회적으로 훈육하는 일터(제2장소) 외부에 존재하는, 포용적이면서 비격식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어울리는 완충지대이다.[41] 사유재산(배타성)과 일터에서의 경쟁으로 차등화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격차와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동질화되는, "가장 생기가 넘치며 (중략) 사람들이 온전한 본모습을 찾"[42]는 공간이다. 1·2장소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잠시 정지되는 '비공식적 공공장소'인 제3장소에서 참여자들은 평등한 대화와 장난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심신의 휴식과 압박을 해소한다.[43]

부산의 국숫집은 그간 인화가 감내해야 했던 공적인 장소에서의 침묵

41) 레이 올든버그, 김보영 역, 『제3의 장소』, 풀빛, 2019, 59-69면 참조.

42) 위의 책, 66면.

43) "제3의 장소는 중립지대에 존재하여 손님들을 사회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수평화하는데 기여한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대화이며, 대화는 인품이나 개성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제3의 장소라는 공간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고, 대체로 외관도 수수하다. 또한 직장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도 열려 있다. 제3의 장소의 성격은 단골손님들에 의해 좌우되며 통상적인 장난스런 분위기는 다른 영역에서의 진지함과 대조된다. 제의 장소는 근본적으로 집과 다르지만, 상식적인 편안함과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집의 성격과 흡사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제3의 장소는 비공식적 공공생활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보인다." 위의 책, 93면.

에 따른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제3장소이다. 정자와의 만남의 장소이자 단골 술집인 동경의 술집 또한 마찬가지다. 술집 여급들에 대한 인화의 태도는 그간 공적 장소에서의 침묵의 그 대가로 따라오는 부정적인 정념과 뒤틀린 심신을 음주가 가능한 제3장소에서 해소하는 방식으로 조선인 유학생이라는 사회적 퍼스널리티를 유지해왔음을 암시한다. '경우'에 따라 침묵하고 그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주체화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동경의 단골 술집과 부산 국숫집에서 발화되는 인화의 음주벽은 그를 예속하는 당대 제국의 통치성과 훈육체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공적/사적영역의 완충지대로서 제3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해소의 의미는 제1·2장소라는 공적/사적영역의 물질적·문화적 헤게모니가 주체에게 가하는 압력의 종류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자와 잔을 주고받으며 함부로 내뱉는 아내에 대한 험악한 농담은 한껏 주눅든 채 H교수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한심한 면모의 반작용이다. 국숫집 여종업원에 대한 희롱은 현해탄을 건너면서 겪은 스트레스 해소와 무관하지 않다.

인화의 음주는 제국 헤게모니와 상징체계 안에서 궁극적으로 소외되는 가운데 그가 수행한 침묵에 따른 부정적 정동을 사회와 타협하여 허용되는 한에서 스스로 해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세전』의 제3장소는 올든버그가 주장하듯 온전한 의미에서의 포용과 평등이 허용되는 대안의 장소일 수 없다. 그것은 제국 체제의 피식민 지식인으로서의 공적 장소에서의 부담을 내려놓고 이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장소로서 식민 통치성의 침묵의 순환이 지속되기 위한, 제국 체제 작동을 위한 기능적 완충지대이다.

이후 식민지 지식인 인화의 음주 습관이 폭음으로 이어지면서 뒤틀린 자아효능감으로 발화되는 건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자신의 공적인 자아가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 인한 자아 분열과

자기 학대가 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인화가 유지하던 침묵과 해소를 통한 자기 보전 행위는 조선에 들어온 후부터 점차 깨어진다. 조선에서의 음주는 조선인 유학생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소비행위였던 동경에서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자신이 속한 조선인 성인 남성 사회의 사교 관습으로 인화에게 강권 되는 탓이다. 조선에서 인화는 자신의 경우와 기분에 따라 술을 사먹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술자리에 초대된다. 이는 인화에게 있어 달갑지 않고 불편한 자리에 불과하다. 자아 분열과 간극을 심화하는 조선인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상연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여 조선인들과 대작(對酌)하는 가운데 인화는 소극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유지한다. 집안 종가의 장남과의 술자리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선산 묫자리 타령을 한쪽 귀로 흘려들으면서 억지로 참어야 하거나 무엇보다 폭음과 유탕한 생활로 일생을 낭비하며 사는 조선에 남은 동세대 측근들의 암울한 상황을 그저 참고 듣는다.

달갑지 않은 술자리가 이어지는 상황은 조선인의 무절제한 음주 습관에 대한 악담과 자기혐오로 치닫는다.

> 나는 먹고도 싶지만 조선에 돌아오면 술이 금시로 느는 것이 걱정이었다. 조선 와서 보아야 술이나 먹고 흐지부지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라고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하면 조선 사람이란 무엇에 써먹을 인종인지 모르겠다. 아침에도 한잔, 낮에도 한잔, 저녁에도 한잔, 있는 놈은 있어 한잔, 없는 놈은 없어 한잔이다. 그들이 찰나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노력이요, 그리하자면 술잔 이외에 다른 방도와 수단이 없다.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사실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다. 무덤으로 끌려간다고나 할까? 그러나 공동묘지로는 끌리는 것이다. 'To live'가 아니라 'To compel to live'이다. 능동이 아니라 피동이다. 그들에게 과거에 인생관이 없고 이상이 없었던 것과 같이 현

재에도 또한 그러하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신의 무절제한 낭비라고 생각한다. 조선 사람에게서 술잔을 뺏는다면 아마 그것은 그들에게 자살의 길을 교사(敎唆)하는 것이다.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잊어버려라-이것만이 그들의 인생관이다.[44]

인화의 자조는 스스로가 경원해 마지않는 조선인의 수치스러운 반문명적 면모[45]에 자신이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토로라기보다는 이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다는 자의식의 발로로 읽힌다. 여기에는 "상대자의 강약과 빈부의 정도와 계급의 고하를 감정할 필요가 있고, (중략) 의복 언어 거조 등이 시속적 유행에 낙오가 됨은 현대 생활의 일대 수치요 고통이"[46]라 믿고 행하는 근대 주체 특유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거리두기의 태도와 함께 조선인으로서 수치심이 상존한다. 인화는 시종일관 조선 사회와 자신을 분리하여 세련된 동경 신사의 면모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화는 그토록 자기 안에서 떠밀어내고자 하는 조선인 사회 안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스스로 한심해 마지않은, 미래 없이 폭음으로 현재를 탕진하는 한심한 조선인 군상으로 침잠해가는 것이다.

조선에 귀국한 이후 술자리에서 보이는 인화의 복잡한 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주 행위를 19세기 근대 서구에 새롭게 출현한 인간적 자질과 역량의 관점에서 음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현상을 참조해볼 수 있다.

44) 염상섭, 「만세전」, 앞의 책, 145-156면.

45) "조선 사람은 외국인에게 대하여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으나, 다만 날만 새면 자릿속에서 담배를 피워 문다는 것, 아침부터 술집이 분주하다는 것, 부모를 처들어서 내가 네 아비니 네가 내 손자니 하며 농지거리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 겨우 입을 떼어놓은 어린애가 엇먹는 말부터 배운다는 것, 주먹 없는 입씨름에 밤을 새고 이튿날에는 대낮에야 일어난다는 것…… 그 대신에 과학 지식이라고는 솥뚜껑이 무거워야 밥이 잘 무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을, 외국 사람에게 실물로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선에 오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경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유와 원인을 많이 수집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다." 위의 책, 82-83면.

46) 위의 책, 26면.

초창기 서구 근대사회에서 음주 행위의 적정성 여부는 근대적 권력, 개인성, (임상의학과 관련된)몸의 발견과 함께 문제시된 남성 주체의 자유의지(free will)와 관련된 새로운 의제였다.[47] 주지하다시피 인류는 알코올이 심신에 가하는 향정신성 마취 효과를 이용하여 사회와 집단의 결속과 관련된 수많은 관습을 형성해왔는데 이는 서구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48] 그러나 기성의 세계관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단독자적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 사상이 영국을 중심으로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정확히 말하면 폭음은 세계의 과학적 진보의 척도이자 이를 이끌어가는 독립독보적(獨立獨步的) 개인의 역량을 좀먹는 악덕이자 안티테제로 문제시되었다.[49]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건 당시 영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음주

47) Hary Gene Levine, "The Discovery of Addiction: Changing Conceptions of Habitual Drunkenness in America", Edited by Susanne MacGregor & Betsy Thom, *Drug and Alcohol Studies: Volume Ⅰ-Historical and Cultural Studies*, London: Sage, 2014, pp.19-20 참조.

48) 서구사회문화에서 알코올과 관련된 대략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마크 포사이스, 서정아 역, 『술에 취한 세계사』, 미래의 창, 2019 참조.

49) "알코올 중독은 1880년대에 자유주의적 주관성의 패배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정신 이상과는 달리 이성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 특히 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음주가 의지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강조했고, 다른 사람들은 기존의 성격적인 결함이 과도한 음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인-결과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금주는 '의지의 기능 상실(the loss of will function)'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술(inebriety)'과 '알코올중독(dipsomaniac)'이라는 용어가 현재 생겨나기 전에 쓰여진 바로 그 초기 저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열광(manias)과 연관된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음주와 의지의 밀접한 연관성은 도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도 중요했다. (중략) 의지는 인간 진전에 관한 과학적 이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하인리 모들리(Heinry Moudsley)는 1884년 『신체와 의지(Body and Will)』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영역에서 의지의 기능'이 인류 진화의 결정적이고 가장 드높은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진화의 최첨단 혁신이기 때문에 '최저 안정적'이며, 따라서 '제일 해결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들리에게 과음 및/또는 통제되지 않은 음주는 증상과 퇴화의 원인, 그리고 그것이 '최상의' [인간]역량을 공격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증상이었다." Mariana Valuerde, "Slavery from Within: The Invention of Alcoholism and the Question of Free Will", Ibid., pp.263-264. []은 인용자.

비판은 알코올이라는 물질 자체를 겨냥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문제 삼았던 건 폭음과 알코올의 유혹에 굴복하는 무절제한 의식과 의지박약이었다. 19세기 유행했던 우생학에 바탕을 둔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이들은 알코올의 유혹을 이겨내는 절제 의지가 인류 진보의 표상으로서 백인 남성의 천부적 역량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당대의 최상위 남성들에게서 알코올 중독은 어느 계층에서보다 만연한 현상이었다는 게 문제였다.[50] 이러한 가운데, 백인 남성의 천부적인 자유의지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심신의 단련과 자조의 기술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된다.[51] 그렇게 알코올 중독과 폭음은 백인 남성 주체의 선천적인 역량을 좀먹는 악덕이자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기돌봄을 통한 개인의 사회적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자기 통제력 상실(loss of self-control)의 척도로서 의미화되었다.[52]

귀국 후 폭음으로 치닫게 되는 인화의 처지는 근대인으로서 자유의지에 따른 그의 자기 보존과 절제의 역량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가 그간 경원시해오던 자신의 조선인 정체성에 침잠되어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인화의 조선인 정체성은 근대인으로서 그의 의지 너머에 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자유의지의 역량을 갈고 닦았는지는 무관하다. 식민권력의 호명 앞에서 그는 언제나 피동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인화의 능동적인 의지는 식민권력이 그를 조선인으로 호명하는 가

50) “알코올은 범죄자, 인종적 타인, 빈곤층 또는 신경쇠약성 상류층 여성에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타락'의 증상/원인 중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상류층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지력(선한 종류의 의지력, 물론 자유 의지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되었고, 남성은 비슷하게 어떤 계층과 인종의 여성들보다 더 많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과 다른 중독은 많은 의사들이 그들의 임상 경험에서 지적했듯이, 확실히 가장 높은 계층에 영향을 미쳤다.” Ibid., p.266.

51) Ibid., p.273 참조.

52) 19세기 영국이 자유주의 도덕철학의 관점에서 제기됐던, 자기 통제력 상실의 사회적 의제로서 폭음과 알코올 중독 담론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R.P. Swinson & Derek Eaves, Op.cit., pp.260-264 참조.

운데서 뒷전으로 밀리거나 무화되어 왔다.

귀국 이후 인화가 절제를 내려놓고 식민지 조선 사회에 허용된 가장 보편적인 마취성 향정신 물질인 알코올[53]에 심신을 의탁하는 처지로 전락하는 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대 주체로서 절제를 포기한 채 자기 학대와 열등감에 시달리며 폭음으로 치닫는 식민지 체제의 조선인 엘리트의 면모는 인화라는 일개인의 특수한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세전』과 동시대 소설인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는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시사한다. 「술 권하는 사회」의 화자 아내 '나'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유능한 남편이 "유위유망(有爲有望)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54]시킨 채 일생을 낭비하는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다. 참다못한 아내는 남편에게 대체 왜 그리 폭음하는지 묻는다. 남편은 자신의 폭음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조선인 사회의 비관적인 상황을 견디기 위한 방편이라 일갈한다.[55]

'남편'의 한탄과 토로는 귀국 이후 조선인 사회에 섞여 들어가면서 폭음으로 인한 자기 학대의 악순환에 빠진 인화의 멘탈리티와 상통한다.

53) 주류는 조선총독부의 초창기 소비재이자 주요 세수로서 적극적으로 산업화·양성화됐다.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주류산업』 26, 대한주류공업협회, 2006, 28-29면 참조. 알코올은 식민지 체제 내내 당국에서 유일하게 허용한, 가장 손쉽게 구입하여 즐길 수 있었던 향정신성 기호품이었다. 식민지시대 내내 지속되었던 신문·잡지의 주류광고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확인해볼 수 있다. 최규진, 『이 약 한번 잡숴봐!: 식민지 약 광고와 신체 정치』, 서해문집, 2021, 281-289면 참조.

54)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범우비평판 한국문학 13: 운수 좋은 날(외)』, 범우, 2004, 61면.

55) "무슨 사회란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무어라 할까……저 우리 조선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오……(중략)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무슨 사업을 하겠소. 회(會)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중략) 그래도 아니 먹는 것보다 나았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위의 책, 62-63면.

‘남편’이나 인화 같은 일군의 지식인 집단의 형상을 통해 염상섭과 현진건이 당대의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식민지 통치체제에서 문명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화처럼 침묵의 자기 배려를 내면화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그에 따른 부정적인 정동은 소비와 사치 혹은 음주 같은 허용된 한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다. 그 이상 일체의 사회활동이나 해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꿈꾸는 이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고통받다가 끝내 의지를 상실한 채 무절제한 폭음이 주는 향정신성의 뒤틀린 자기효능감에 탐닉하며 무너진다.

인화와 ‘남편’의 폭음은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철학자의 주장과 달리, 폭음과 의지 상실의 문제가 개인의 선천적 의지와 역량의 문제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식민지사회 통치구조와 이에 예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지배 민족에게 있어서 폭음과 중독은 자신의 의지에 선행하는 사회구조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문명화의 정도나 역량의 차원에서 당대 평균적인 일본인들을 훨씬 상회할 게 분명한 인화나 ‘남편’ 같은 유학생 엘리트들마저 자기통제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이를 분명히 시사한다. 심지어 인화는 선천적인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의식적으로 당대의 문명인으로서 일본인의 아비투스를 깊이 체화하고 수행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식민지의 지식과 권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를 더 깊이 헤아리며,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침묵은 인화에게 심신의 안정은커녕 폭음으로 인한 심신의 파괴로 그를 이끌어간다.

2) 해방의 사회적 의지

인화와 ‘남편’ 같은 식민지 지식인들의 폭음은, 앞서 언급한 「자기 학대에서 자기 해방에」에서, 당대의 염상섭이 ‘경우에 도전’하여 이르고자 하는 궁극적인 해방의 의미를 새삼 곱씹게 한다. 여기에는 염상섭 초창기 예술론에 관한 에세이들[56]에서 강조되는, 개성 중시의 자아 해방론의 차

원과 함께, 조선인 사회의 궁극적인 해방과 관련하여 염상섭이 포착하고 수행한 미결/미완의 실천의 의지가 담겨 있다.

> 나의 아(我)는, 또 아직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조선의 벗에게, 진심으로 이 서한을 드린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제군의) 앞으로 가서 참을 수 없는 이 심중을 제군에게 말씀하려 함이요, 또 제군은 이러한 말을 들어주실 줄 믿는 바이다. 만일 이 일문을 통하여, 두 마음이 상촉할 수 있을 지경이면 그것은 얼마나 나의 기꺼움일까. **제군도 그 적막한 침묵을 나의 앞에서 깨뜨려주기 바라는 바이다. 사람은 언제든지 심중을 서로 토설할 만한 친구를 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제군 간에는 애(愛)를 심저로부터 갈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같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나는 이 방문을 아니하리오(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 제군도 이 서한을 손에 들고, 나에게 대답하기를 주저치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러하리라고 믿는 터이다.[57]

위의 인용은 「자기 학대에서 자기 해방에」 직후에 쓴(1920.4.20) 에세이의 일부이다. 염상섭은 '경우의 폐하'에서 벗어나 조선인들에게 침묵을 깨뜨리라고 말을 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그의 '말 걸기'가 조선인들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침묵하는 '조선의 벗들'과 더불어 일본과 일본인에게 동시에 말을 건다.

> 나는 일본이 언제든지 정당하고 따뜻한 일본이 되기를 바란다. 만일 무정한 행위를 자랑하는 일이 있을 지경이면 그때의 일본은 종교의 일본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일은 불행히 국제관계가 아직 도덕의 역

56) "그러하면 자아의 각성이니, 자아의 존엄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이를 약언하면, 곧 인간성의 각성, 또는 해방이며, 인간성의 위대를 발견하였다는 의미이다." 「개성과 예술」, 한기형 · 이혜령 편, 앞의 책, 193쪽. 더불어 「지상선을 위하여」, 같은 책, 200-224면도 참조.

57) 염상섭, 「조선벗에게 정(呈)하는 서(書)」, 한기형 · 이혜령 편, 앞의 책, 97면. 강조는 인용자.

에 도달치 못하였으니, 더구나 그간에 종교적 애가 있을 까닭이 있으리오. 모든 부정과 죄악이 간혹 국가의 이름으로서 변호치 않는가. 국가가 진리에 쫓지 못하고, 진리가 국가에 순응하여 변화된다. (중략) 이러한 이러한 행위로 고통받는 인민이 있다 할진대, 그것은 일국의 치욕이요, 또 인류에게 주는 모욕일 것이다. 일본이 만일 정직한 일본이 되고자 할진대, 이러한 행위를 고침을 주저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국가를 진리에까지 끌어올리기를 절망하는 바이다.[58]

염상섭은 조선인들에게 더이상은 침묵하지 말라고 호소함과 동시에 일본 통치의 불합리함과 모순을 주장하며 이를 시정하라 요구한다. 피통치 상태에 놓인 조선인의 해방과 이상(理想)과 정도를 벗어난 일본국의 통치 이성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자기 학대와 분열을 동반하는 침묵을 끝내고 해방을 지향하는 의지의 실천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염상섭은 인간의 궁극적인 해방이 개인적인 자아 해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다. 궁극적인 해방은 각자의 내면에 고립되어 파편화될 따름인 조선인의 침묵과 이를 강제하는 '힘의 일본' 양자의 일신을 통해서만 이상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59] 따라서 염상섭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해방이란 개인의 안위를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자조(自助)와 쾌락의 향유는 일시적인 자아효능감을 선사할 뿐이다. 동경 신사 인화의 일상이 그러하듯 말이다. 이런 삶은 인화가 수차례에 걸쳐 토로하는 대로 '그런대로 견딜 만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58) 위의 책, 100면.

59) "요사이 제군과 우리 사이가 나날이 벌어져간다. 근접하려는 인정이 이별을 원하는 증오에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연한 일인가. 어떤 자의 마음이든지 이에 나와서 이러한 증오를 자연한 애에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힘'의 일본이 이러한 화합을 재래하지 못할 증오, 나의 아는 바이다. 그러나 정의 일본은 할 수가 없을까. 강력의 위압이 아니요, 오직 눈물 많은 인정만이 세상에 평화를 재래케 한다." 위의 책, 101면.

러나 그것은 일본인 스승 앞에서 이유 없는 자격지심과 일본인들의 저급한 농담에 소외감과 열등감에 시시때때로 시달려야 하는 침묵의 악순환 속에서의 삶이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순응하는 일상 속에서 그의 심신은 점차 의지를 상실해가면서 극심한 내적 분열과 학대 끝에 의지를 상실하는 절망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인화는 이런 피폐한 생활을 끝내고자 한다. 계기는 아내와 사별한 직후 자신을 찾아온 친우 병화와의 만남이다. 나고야에 애인 을라를 남겨두고 유학 생활을 끝낸 병화는 술자리에서 그녀를 은근히 인화에게 떠넘기려 시도한다. 그녀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서이다. 인화는 병화에게 "내적 생활의 방향 전환에 노력"[60]해야 한다고 정색하며 병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다.

이후 인화는 그간 정자에게 했던 말본새와 사뭇 다른 정갈한 편지를 작성하여 동경으로 보낸다. 인화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러시아 혁명이 마무리되던 당대의 분위기를 '구주(歐洲)의 천지의 참혹하던 도륙이 종언하고 전 세계에 신생의 서광이 가득'한 신생의 시대라 표현하면서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새 출발을 선언한다. 그리고 정자에게도 술집 생활을 청산하고 못다 마친 학업을 지속하라며 삼백 원을 동봉해 동경으로 부친다.

졸업시험을 보기 위해 어차피 동경행에 오를 터인데 직접 돈을 편지에 동봉하는 인화의 태도는 정자와 결별하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암시한다. 그에게 있어 정자와의 이별이 단순한 실연이 아니라 그간 자기 생활에 대한 반성과 전면적인 일신의 의지와 관련되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자에게 돈을 보내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인화가 편지와 함께 조선에서 경자에게 학비를

60) 위의 책, 163면.

보내는 장면은 초반부와 대위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전과 달라졌다. '조선에서의 학비'는 더이상 침묵하는 작은 주체의 일시적인 향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의 해방을 향한 인화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일신과 타인의 갱생을 위한 호혜적 증여로 그 의미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자면, 『만세전』은 1910년대 전후 조선인 지식인 인화가 그간의 침묵하는 삶 대신, 궁극적인 해방을 향한 첫걸음을 떼며 마무리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내지 담론과 지식으로 훈육된 근대인으로서 청년 염상섭을 괴롭히던 자기분열과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세련된 동경 신사-유학생 인화는 자신을 향한 부조리한 조사와 통제를 '견딜만하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정동을 일시적인 소비와 음주를 동반한 향락으로 해소해 왔다. 조선인 정체성을 경원시하는 침묵하는 작은 주체의 자기 배려와 관련되는 이러한 수행성은 그의 심신을 열등감과 자기 학대로 몰아간다. 인화의 조선인 정체성은 귀국 이후 성인 남성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강도를 더해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피동적인 삶과 자유의지를 상실한 폭음하는 신체가 되었다고 자조한다. 인화에게 있어서 절제된 음주는 단순히 유희 혹은 사교 행위가 아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심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의 의지와 관련된 문명적 행위였다. 동경의 술집과 부산의 국숫집 같은 허용된 공간에서만 행해지던 음주 행위가 조선인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폭음으로 점철되는 상황에 괴로워하는 건 이 때문이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 폭음하는 조선인-신체 인화는 종전과 혁명 이후라는 신시대에 발맞춰 그간의 관성적이면서 수동적인 자기 배려의 삶에서 해방되길 꿈꾼다. 동경에서 정자와 맺은 술집에서의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우정과 호혜적 증여 관계로 전환하는 인화의 행동은 그 첫걸음이다. 궁극적인 자기 해방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세계의 변혁을 위해 그간의 침묵을 그치고 무람없이 타인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침묵 또한 깨뜨리고자 하는 당시 청년 염상섭의 해방에 대한 지론이 담겨 있다.

동경으로 돌아간 인화는 그토록 원하던 자기 해방을 손에 넣게 되었을까. 알 수 없다. 염상섭은 『만세전』의 후일담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염상섭이 남긴 각종 논설과 소설의 면면을 살펴 이를 추측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인화는 아마도 자신이 갈망하던 궁극적인 해방을 관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인화 같은 당대 청년 지식인들의 내면에 신생의 의지를 촉발한 종전은 기대만큼의 세계변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직후 폭발한 조선인들의 '해방선언'은 식민당국의 통제로 봉합됐으며 혁명은 억압됐다. 종전 이후의 평화기는 십여 년 후 벌어질 더 큰 세계전쟁의 전야였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만세전』 이후 염상섭 소설 세계 안에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침묵하며 적응한 군상들로 넘쳐난다. 그들 중 누군가는 조의관이나 상훈처럼, 지속되는 식민 통치의 관성에 순응하여 퇴락한다. 그러나 염상섭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형상화하는 인물은 이런 이들이 아니라 침묵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해방의 의지를 품고 사는 이들이었다. 퇴폐적이고 반항적인 '주의자' 청년 병화, 하층민 여성 경애, 겉으로는 침묵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덕기 같은 인물들 말이다. 이러한 군상들은 1920·30년대 염상섭 장편 소설 특유의 활기와 리얼리즘의 원천이다.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에는 알코올이 빠지지 않는다. 음주는 염상섭 소설에서 숱하게 반복되는 '침묵하는 동조자'와 반항하는 (주의자)청년 그리

고 비(非)남성 하층민을 만나게 하는 비공식적 의례이다. 이들은 음주를 빌미로, 식민통치의 논리와 헤게모니로 배치된, 제3장소들을 계급과 민족 젠더를 초월한 호혜적인 만남의 장소(rendez-vous)로 은밀히 전환한다. 『사랑과 죄』의 조선인 청년들은 술집에서 민족을 초월한 국외의 사회주의자 활동과 연결된다. 『삼대』에서 "여보! 동무! 매우 춥구려, 한잔합시다그려"[61]는 당국의 눈을 피한 사회주의자 청년끼리의 회담을 위한 암묵적인 의례처럼 기능한다.

염상섭 소설에서 당대의 아나키·사회주의 사상은 겉으로 침묵하는 작은 주체로 보이는 조선인 청년들이 '경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적 실천의 일환으로서 암시된다.[62] 『만세전』 이후의 장편 소설에서, 염상섭은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해방이 요원한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음주 의례를 해방을 향한 사회적 의지의 수행성과 은밀히 연결해왔다. 『만세전』에서 일인칭 화자 인화 혼자 감당하던 술 마시는 사람의 면모는 그렇게 염상섭이 품고 있던 사회적 해방의 의지와 전망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집단적 실천으로 확장된다. 이들은 음주를 통해 침묵하는 작은 주체로 보이는 조선인들의 '진면모'를 가시화한다. 그들은 겉으로는 침묵하면서도 내면 어딘가에 자아와 세계의 해방을 꿈꾸면서 식민권력의 눈을 피해 같은 열망을 품은 이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무람없이 말을 건다. 알코올을 통해 그들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도 되는 이'들과 함께

61) 염상섭, 『삼대』, 앞의 책, 309면.

62) 염상섭은 『무화과』의 완식의 말을 빌려, 당대 아나키·사회주의 사상을 초창기 논설에서 역설했던 '경우'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여 해방에 이르는 자기 의지와 연결했다. "……사람은 경우에 지배된다. 하지만 또한 자기의 경우를 지배해 가는 것도 사람의 마땅히 할 책무는 아닌가……나는 금년 일 년도 평범하게 단조로운 직공생활을 작년과 같이 아무 불평도 없이 계속해 나가리라. 그러나 불평도 없이 라는 말은 일개 직공인 내 처지 내 직업에 대하여 말이다. (중략) 금년의 새 결심- 첫 결심은 『경제학 강의록』을 보자는 것이다. 만각이라 하겠지만, 대개 현대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 어떠한 상업에 종사하든지, 경제 지식 없이는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다 다만 부지런만이 나의 '경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깨닫고 있다." 염상섭, 『무화과』, 동아출판사, 1996, 737-738면.

술잔을 기울임으로써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만세전』과 그 이후 염상섭 소설 세계는 개별자들의 심신을 만성적인 분열과 자학에 시달리게 하는 통치(이)성의 눈을 피해 해방을 실천한다. 그러나 뒤틀린 심신에서 기인하는 해방으로의 도정은 그에 수반하는 부조리를 재생산하기에 또 다른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기도 하다. 지식인으로서 인화의 면모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상적인 지식인과는 거리가 멀다. 해방을 위시한 그의 반성은 아내에 대한 그간의 몰염치한 행태나 술집 작부들에게 고개 숙인 남성성을 해소하는 행위[63]의 반성에 이루지 못한다. 또한 정자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신생을 선언하는 면모는 유아적이며 도의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음하는 신체에서 해방과 신생을 지향하는 인화에서 발로하는 듯한 염상섭 소설 세계의 술 마시는 인간의 형상들은 여전히 흥미롭다. 조선인 지식인들에게 강제되었던 침묵의 악순환이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저항과 반항의 의례와 연결된다는 측면 때문이다. 이렇듯 식민지 시기 염상섭은 『만세전』 이후 알코올 특유의 마취성 자기효능감으로 뒤틀린 심신이 꿈꾸는 해방의 '가능성'의 결속을 서사 안에 지속적으로 외삽했다. 여기에는 당대의 조선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전아(全我)와 세계의 해방의 순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염상섭의 의지가 서사에 담겨 있는 듯하다.

63) 이는 근대의 남성 지식인들이 주류산업과 음주문화에서 여성의 역할과 입장을 몰각해온 맥락의 일례로 볼 수 있다. Mallory O.Meara, *Girly Drinks: A World History of Women and Alcohol*, Toronto: Hanover Square Press, 2021, pp.181-183 참조.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염상섭, 김경수 편, 『두 파산』, 문학과지성사, 2006.

염상섭, 『무화과』, 동아출판사, 1996.

염상섭, 정호웅 편, 『삼대』, 문학과지성사, 2008.

염상섭, 『廉想涉全集2·5·9』, 민음사, 1987.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 Ⅰ』, 소명출판, 2013.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 Ⅲ』: 1946-1962』, 소명출판, 2014.

현진건, 『범우비평판 한국문학 13: 운수 좋은 날(외)』, 범우, 2004.

2. 단행본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삼신문화사, 1999.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문학과사상 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양주동, 『梁柱東全集 4: 文酒半生記/人生雜記』, 동국대학교출판부, 1975.

이보영, 『난세의 문학: 염상섭론』, 예림기획, 2001.

최규진, 『이 약 한번 잡숴봐!: 식민지 약 광고와 신체 정치』, 서해문집, 2021.

허병식, 『교양의 시대: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형성』, 역락, 2015.

레이 올든버그, 김보영 역, 『제3의 장소』, 풀빛, 2019.

윌리엄 제임스,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한길사, 2003.

페트릭 E. 맥거번, 김형근 역, 『술의 세계사: 알코올은 어떻게 인류 문명을 발효시켰나』, 글항아리, 2016.

溫振華·載寶村, 『漢人社會的形成』, 臺北: 玉山社, 2019.

許俊雅, 『日治時期原住民: 相關文獻飜譯選集』, 臺北: 秀威資訊技股份有限公司, 2018.

松田京子, 周俊守 譯, 『帝國的思考: 日本帝國對臺灣原住民知識支配』, 新北市: 偉城出版, 2019.

Mallory O.Meara, *Girly Drinks: A World History of Women and Alcohol,* Toronto: Hanover Square Press, 2021.

Mark Jayne, Gill Valentin & Sarah L. Holloway, *Alcohol, Drinking, Drunkenness: (Dis)Ordinarly Spaces*, 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11.

Priyamvada Gopal, *Insurgent Empire: Anticolonial Resistance and British Dissent*,

London: Verso, 2019.

Ronald L. Akens, *Drugs, Alcohol and Society: Social Structure, Progress and Policy*, Belmont: Wordsworth, Inc., 1992.

R.P. Simons & Derek Evans, *Alcoholism and Addiction*, Polymouth: McDonald & Evans LTD., 1978.

Susanne MacGregor & Betsy Thom(Ed), *Drug and Alcohol Studies: Volume Ⅰ- Historical and Cultural Studies*, London: Sage, 2014.

3. 논문

김명인, 「한국 근대소설과 식민지 근대성: 시론적 연구- 염상섭의 『만세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주류산업』 26, 대한주류공업협회, 2006.

윤재민, 「전후 유머 · 명랑소설의 흥망성쇠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사사키 쿠니-조영수-조흔파'로 이어지는 계보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이종호, 『염상섭 문학의 대안 근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이철호, 「해부와 허언- 염상섭 소설과 근대 생명정치의 한 기원」, 『상허학보』 56, 상허학회, 2019.

이혜령, 「正史와 情史 사이: 3 · 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학사연구』 4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장두영,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개성'과 '생활'의 의미-아리시마 타케오의 『아낌없이 사랑은 빼앗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4,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황종연, 「과학과 반항- 염상섭의 『사랑과 죄』 다시 읽기」, 『사이』 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Abstract>

Silence and Liberation of the Binge-Drinking Body
−Revisiting *Mansejeon*

Yoon, Jae-min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interpret *Mansejeon* by paying attention to the *homo imbibens* as an aspect of the colonial subject's bodily performativity embodied in *Lee In-hwa.*

As a *Chosun* student in Tokyo, he has rationalized the irrational investigation and control directed at him as ‘tolerable’ and resolved the negative emotions with temporary consumption and pleasure accompanied by drinking. His behavior is related to the self-care of the subject who neglects the identity of *Chosun*. It makes his mind and body suffer from inferiority and self-abuse. To make matters worse, as In-hwa participates in inevitable drinking parties after returning home, he is obsessed with the feeling that his Korean identity is gradually strengthening. In such a situation, he is frustrated by his ego of himself degenerating into a binge-drinking body that has lost his active life and free will.

At the end of the plot, *In-hwa* has a desire to be freed from the inertial and passive self-care of the past to keep pace with the new era of the post-First World War and the post-revolutionary period; the first step is to convert the superficial human relationship with *Jeongja*, a tavern employee in Tokyo, into friendship and reciprocal gift relationship. This contains thought on liberation of *Yeom Sang-sup*, a young man at the time, who tried to break their silence and talk to each others without

hesitation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Key words: *Yeom Sang-sub*, *Mansejeon*, colonial governmentality, cycles of silence, liberation, homo imbibens, free will

투 고 일 : 2022년 2월 10일 심 사 일 :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 2022년 3월 20일